한국계 미국인 애나 킴 "부모님 나라에서 뛰고 싶다"

한국여자프로농구(WKBL)가 첼시 리 사태로 동포선수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WKBL 무대를 밟을 수 없었던 한국계 미국인 애나 킴 선수가 WKBL에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첼시 리는 2015~2016시즌 부천 KEB하나은행에서 외국국적동포선수 자격으로 뛰면서 팀을 챔피언결정전에 올려놨다.

첼시 리는 KEB하나은행 입단 초기부터 핏줄 논란을 낳았다. 외국인 선수와 다름없는 체형과 파워 그리고 검은 피부에서 한국계라는 것을 느끼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첼시 리 측은 친할머니가 한국인이라 주장하며 해외동포 선수 자격으로 WKBL에 입성했다. KEB하나은행과 한국여자농구연맹도 수차례 검증 절차를 거친 끝에 첼시 리 측이 제출한 서류를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첼시 리 측이 KEB하나은행에 제출한 서류 중 자신과 아버지의 출생 증명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서류로 혈통을 속인 뒤 한 시즌 동안 WKBL무대에서 활약한 것이다. 해당 시즌 첼시 리는 경기당 평균 15.2점을 넣고, 10.4개의 리바운드를 잡으며 득점과 리바운드, 신인상 등을 휩쓸었다.

그러나 서류를 조작한 것이 밝혀지면서 한국여자농구연맹은 해당 시즌 KEB하나은행의 성적, 첼시 리의 기록을 모두 삭제했고, 결국 동포선수제도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WKBL에서 뛰고자 했던 동포 선수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갔다.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 애나 킴(24·165㎝)은 대표적인 피해자이다. 고교시절 캘리포니아 지역 가드 톱10에 들었던 그는 롱비치대학교 재학 시절 미국대학농구(NCAA·여자) 무대에서 뛰었다.

대학 졸업 후 WKBL 진출을 희망했던 애나 킴은 2017년 한국으로 들어가 6개 구단을 돌며 훈련과 연습경기를 하면서 기량을 테스트하기도 했지만 입단할 길이 없었다.

한국여자농구연맹 지난 7월 이사회를 통해 2019~2020시즌부터 외국국적동포선수 제도를 재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애나 킴은 신입선수선발회(드래프트)에 참가신청이 가능해졌다. 한국여자농구연맹은 내년 1월 9일 펼쳐지는 드래프트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애나 킴은 6일 입국해 친척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 애나 킴은 "한국은 부모님의 나라이고 친척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다.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뛰는 것이 꿈이었다. 드래프트 신청을 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애나 킴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강력한 1순위 후보로 손꼽힌다. 2년 전 각 구단을 순회하며 훈련 할 때 대부분의 감독들은 '개인 기량만 놓고 보면 당장 경기에 투입해도 손색없는 수준' 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애나 킴은 "나는 드리블과 슈팅에 강점이 있고 파워 있는 돌파도 자신 있다. WKBL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싶다. 한국에서 뛸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 고 말했다.

손흥민, EPL 폼랭킹 '1위' … "손흥민은 '손나우두' "

손흥민이 최근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가장 폼이 좋은 선수로 지목됐다.

12일 '마이데일리' 에 따르면 영국의 축구통계매체 후스코어드는 10일, 이날 기준 최근 6경기의 활약을 근거로 산출한 '폼 랭킹(form rankings)' 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손흥민은 평균 8.17점을 기록하며 EPL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지난 7일 번리와의 경기에서 70m가 넘는 폭풍 질주로 환상골을 터트리며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주제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두고 "내 아들은 손흥민을 두고 '손나우두' 라고 부른다." 며 손흥민을 브라질의 축구영웅 호나우두와 비교하며 극찬했다.

손흥민은 산출의 기준이 된 6경기에서 3골 5도움으로 공격포인트를 8개 기록했다. 이는 유럽 내에서 전체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6경기 공격포인트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9.23점으로 1위였고 그 뒤를 티모 베르너(8,60점, 라이프치히), 디미트리 파예(8.42점, 마르세유), 앙헬 디 마리아(8.20점, 파리생제르맹), 세바스티안 안데르손(8.20점, 유니온 베를린)이 이었다.

한편 리버풀 전설 제이미 캐러거가 '손나우두' 손흥민(토트넘홋스퍼)의 70m 슈퍼골에 엄지를 세웠다. 손흥민은 공을 잡은 뒤 득점까지 12초 동안 12번 터치하며 80야드(약 73m)를 질주한 뒤 골을 넣었다. 캐러거는 손흥민의 이 골에 대해 영국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특별한 골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며 감탄했다.

로버츠 감독 "휴스턴 선 넘었다"

LA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사인 훔치기 논란에 입을 열었다.

11일 'OSEN' 에 따르면 로버츠 감독은 전날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윈터미팅에 참석,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휴스턴의 불법 사인 훔치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A.J. 힌치 휴스턴 감독과 의혹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그는 여전히 나의 좋은 친구 중 하나" 라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코치와 프런트로 함께한 인연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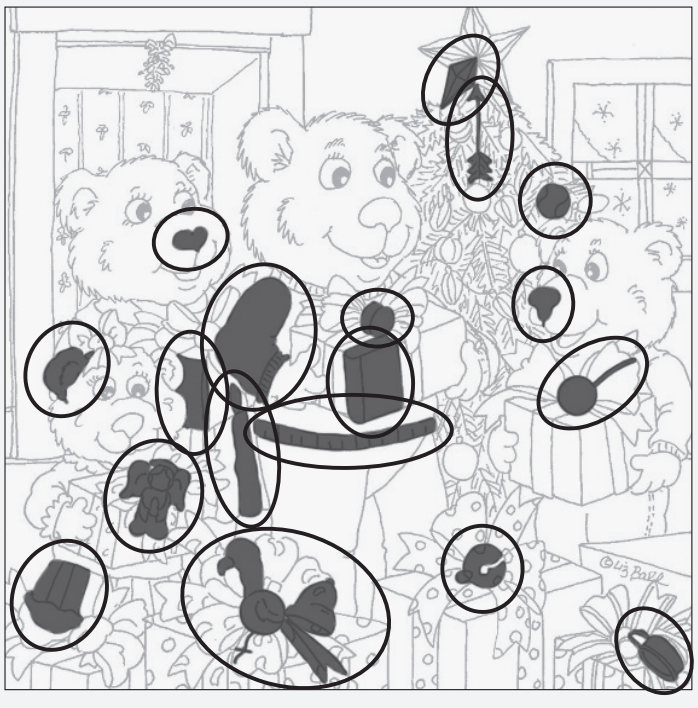
하지만 부정 행위에 대해 할 말은 했다. 로버츠 감독은 "모두가 알고 있듯 경기장 안에서 사인 훔치나 포수 동작을 읽어내는 것은 야구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며 경기장 밖에서 전자기기를 활용한 휴스턴의 부정 행위 의혹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로버츠 감독이 이끈 다저스는 지난 2017년 월드시리즈에서 휴스턴을 만났다. 휴스턴이 전자기기를 활용해 사인 훔치기를 한 시즌으로 포스트시즌에도 이렇게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저스는 휴스턴에 3승4패로 패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눈앞에서 놓쳤다.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2년 전 다저스의 준우승이 우승으로 바뀌진 않는다. 이에 대해 로버츠 감독은 "내 감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 것도 바뀌는 게 없기 때문이다." 며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달라질 게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이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잘 대처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윈터미팅에 참석한 힌치 휴스턴 감독은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2차례 대화를 나눴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 사무국에서 외부에 어떤 말도 하지 않길 요청했다.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음에 더 많은 질문에 답할 것이다." 며 말을 아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낱말퍼즐 정답

1 구	경	■	2 이	3 기	심	■	■
세	■	■	■	숙	■	4 승	선
5 주	6 목	■	7 일	사	8 천	리	■
■	9 청	10 해	진	■	부	■	■
■	■	결	■	11 인	당	12 수	■
■	13 구	사	14 일	생	■	15 배	16 신
17 대	박	■	자	■	■	■	바
■	■	18 브	리	핑	■	19 보	람